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 I)

지 원 모 집 단 위	수험 번 호	성 명

※ 유의 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한다.
2. 1번 문항은 원고지 상단에 1로 기재된 답안지(파란색 답안지)에, 2번 문항은 2로 기재된 답안지(녹색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답안 작성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르되, 분량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로 작성하여야 한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4.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5. 수정 시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나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6.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 문제 1 : [가]와 [나]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시오. (501~600자)

※ 문제 2 : [가]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그려진 '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01~1,100자)

[가]

정체성이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여해 주는 의미 체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존적인 지평에서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 이때에 일정한 의미의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문화이다. 즉, 다른 집단과는 구분되면서 내부에서 공유되는 전통이나 스타일 등의 상징 체계를 매개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속감과 유대감은 개개인이 사회로 통합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긴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 그런데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나 집단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 상품,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점점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일정한 사회적·지리적 범위를 경계로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적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고도화와 시장의 자유화 경향에 따라 정보와 상품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의 영향력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문화 침투' 또는 '문화 제국주의'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단순한 문화 전달이 아니라 문화적 상호 작용에서 불균형한 권력 구조의 문제점도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점점 힘을 잃으면서 소멸되거나 다른 사회에 동화되는 소수 민족들처럼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자기 문화의 입지와 존속성이 흔들리는 집단들의 경우 문화적 정체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4]

과학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해서 정체성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을 때 ‘나’의 정신이 겪는 변화가 일상에서 겪는 변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매 시간 변하고 있다.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 인간의 머릿속은 항상 변화한다. 이전에 저장된 기억 위로 새로운 기억이 덮이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들은 최근의 다른 기억들에 의해 지워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정체성마저 바뀌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나’에게 설령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언제까지나 ‘나’인 것이다.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를 ‘나 다음, 나의 개성’이라고 한다면, 주체성이 무시될 경우 정체성도 의미가 없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성향을 개선하는 것 역시 자발적인 의지의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약물 사용이나 유전자 요법이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생긴 변화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차이점이 있다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일어난 변화에 주체적인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약품이나 유전자 요법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온화한 성품으로 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과학기술의 도움을 선택한 것이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스스로 요양원에서 치료 받기를 선택했다면, 이것도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생기는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같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4]

한 사회학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운동[A]에 참여한 특정 연령대 사람들이 A세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두 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과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운동 참여 2개월 뒤 실시한 설문 문항〉

- 나는 A세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 당신이 사회운동에 참여한 정도는? 적극적 참여 () 소극적 참여 ()

〈사회운동 참여 1년 뒤 실시한 설문 문항〉

- 나는 A세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설문 조사 결과〉

(총 200명)

설문 시점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2개월 뒤	그렇다	140명	20명
	아니다	10명	30명
1년 뒤	그렇다	120명	10명
	아니다	30명	40명

[라]

동열이를 배반자로 몰아세웠듯이 영래는 자치회 때 눈에 난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내서는 벌을 가했다. 신발주머니를 까먹고 안 가져왔던 애들은 벌 청소를, 청소가 불량했던 분단은 몽땅 손들고 오리걸음으로 걷게 한다가, 전 반원이 참가하여 다른 반 애들과 붙었던 시계불알 땡땡기에서 빠졌던 애들은 코 잡고 땡땡기 오십 번을 시키는 식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그런 일에 전처럼 열광하지도 않았고 시들해 있었으며 전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화목해진 편이었다. 모두들 축구라거나 땡땡기에 이겨야 한다는 핑계로 마구 다루는 데 휩쓸리고프지도 않았다. 애들이 앞에 나가서 코끼리 땡땡기를 하고 있을 때, 자치회를 위하여 자리를 피해 주었던 선생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랐다.

“뭘 하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었고 영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벌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벌을?”

“애들이 단체 행동에서 빠지려구 합니다.”

“단체 행동이라니…….”

“애들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전부 놀이에 참가할 작정이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언제 그 놀이를 해 보자구 여럿이서 의논을 했었나요?”

선생님의 한결같이 부드러운 질문에 영래가 대들 듯이 거칠게 대답했다.

“아뇨, 하나하나죠.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모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럿이 하는 일에 마음이 모두 맞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무슨 일에서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급장은 책임이 중할수록 누구에게 불만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불만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겠다는 핑계로 제 잘못을 감추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종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눌러 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에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 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잇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 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잇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종하” 라고 씌어 있고 밑에 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얻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것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로 다시 돌려라.”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댔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잇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 버려.”

“이 새끼가…… 맞아 볼래?”

종하가 내 먹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뺏아 버려, 뺏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 지내던 장판석이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 적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았구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두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았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샛노랗게 질려 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렇기냐?”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 뒤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 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찢어, 인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물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 말까 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짝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고등학교 '문학' 교과서)